



아래의 글은 전체교회 월간칼럼에 실린 미국 장로교 (PCUSA) 제 218 차 총회 (2008) 총회장이신 Bruce-Reyes-Chow 목사님의 글입니다.

소망이 가장 절실 할 때에 진정으로 연결되어 짐의 의미

2009 년 10 월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저의 마음은 요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의 재난들로 인하여 매우 무겁습니다. 몇 일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사모아 섬에는 쓰나미가 왔고, 필리핀은 두 번의 태풍을 맞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홍수를 당함으로 인한 황폐됨과 서로 비난함과 생명을 잃어 버림 등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재난의 사건들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언저리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교회 식구들이 있고 필리핀에 친구가 있는 저로써는 저 혼자만이 이러한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이 우리의 슬픔과, 동정하는 마음과 연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반응들을 선택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품과 같은 우리 개인들의 안전이라는 곳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는 일 입니다. 아니면, 그 사건의 본질에 의하여 압도를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후자처럼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정신과 자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관용하는 마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귀중한 선물은 저에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 문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많은 조직 단체에서 이 메일을 보냅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보내는 소식들을 새롭게 올립니다. 또는 "Facebook" 과 같은 한 Website 을 통하여 대화를 하는 길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의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그 성령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말들과 행위들을 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원하는 방법인 바로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라고 불리는 장로교 재난 구제라는 단체의 일입니다: PDA 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자매 단체들과 협력하여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일해 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지요.

예, 최근의 재난들에 의하여 느껴지듯이, 큰 고통들이 전 세계적으로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적인 삶은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모든 재난들을 헤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